

맞는 아내, 깨어진 삶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난 83년부터 92년 5월까지 여성의 전화가 받은 전체 상담 3만 9백건 중 구타상담이 32%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『매맞는 아내』

세명중 한명

92.6.14

상당수를 차지해온 기혼여성들은 세명중 한명꼴로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.
한국여성의전화대표 金桂貞은 11일 서울태화복지관에서 「매

피해여성 절반이 월 1 회이상 구타당해

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67.2%가 「아이를 때리는 이라고 응답해 매맞는 아내들이 자신의 처지보다는 자신을 때리는 남편의 폭행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. <金惠暎>

7%, 흉기사용 29.1%, 가위 등 고대릴 18.4%, 못뚫고 때릴 (10.6%), 담배를로 지질(7.5%)의 순으로 방법이 잔인한 경우도 적지 않다.

『여성의 전화』 10년 통계

구타방법은 손발로 구타하는 경우가 76.5%로 가장 많고 「타치는 대로」 구타하는 경우가 46.8%로 나타났다.

또 여성의 전화가 90, 91년 전 상담한 3백 96건의 아내구타실례 분석결과 아내구타의 빈도뿐 아니라 그 정도도 자못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이 분석에 따르면 매맞는 아내의 82.7%가 월 1 회이상 구타당하고 50.7%는 월 4 회이상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있다.

■ 형사정책연 가정폭력 실태조사

92.8.23

기혼여성 46%

남편에 구타 당했다

결혼남녀 50% “있을 수 있다” 응답

기혼여성의 45.8%가 결혼기간에 남편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또 기혼남녀의 50% 이상이 남편의 폭력행사에 대해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남자의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.
한국형사정책연구원(원장 허은도)은 22일 서울 시내 기혼남녀 1천2백명(남자 5백60명, 여자 6백40명)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<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>를 펴냈다.
이 논문에 따르면 남편으로부

터 맞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6백40명의 45.8%인 2백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는 ‘타치는 대로 두들겨맞은 적이 있다’는 여성이 9.1%, ‘칼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폭력을 당했다’는 여성도 4.7%에 달했다.
또 1천1백71가구를 상대로 부부간의 폭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부 서로간에 폭력이 발생한 가구가 11.2%(1백31가구),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일방적으로 일어난 가구가 17.2%(2백가구)로 나타났으며, 남편이 아

내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도 4.4%(52가구)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.
결혼 뒤 폭행이 발생한 시기와 관련해 폭행당한 여성 중 3분의1 이상인 37.2%가 결혼 뒤 1년 이내에 처음 폭행을 당했으며 1~2년이 18.2%로 나타나 아내 폭행의 상당수가 신혼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.
또 아내 폭행에 대해 ‘여성에 게 책임이 있다’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3.1%, ‘남자의 폭력은 있을 수 있다’고 답변한 사람이 13.1%나 돼 절반 이상이 아내에 대한 폭행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남편별로 보면 ‘여자가 맞을 것을 해선 맞는다’고 답변한 남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5.5%에 이르렀으며 여자도 32.5%가 같은 응답을 해 남편의 폭력을 용인하는 여성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자랐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자주 본 남성일수록 아내를 더 많이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<임범 기자>